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높은 집값과 렌트비로 인해 매사추세츠를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렌트کن트론투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 비영리단체 홈스포울매스(HAM)와 주내 100여개 단체가 연합을 통해 주청사에서 29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의회에 렌트 안정화법 채택을 촉구했다

## MA 렌트컨트롤 폐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매사추세츠 세입자들, 주의회에 렌트비 인상 제한 법안 촉구  
2010-23년 물가는 40%, 렌트비는 80% 상승 주거 부담 가중  
1994년 렌트컨트롤 폐지논리, 30년 지나보니 대부분 안맞아

(뉴튼=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1994년 (뉴튼=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1994년  
주인투표로 폐지됐던 렌트컨트롤(임대료 인상 제한제)이 30여년 만에 다시 꿈틀대고 있다. 과  
도한 렌트비 인상이 매사추세츠 전역의 주거 안

정을 위협하고 주민들의 매사추세츠 이탈을 가  
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화요일 주청사에서 열린 청문회에  
는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모인 주민들이 과도한  
렌트비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렌트안정화  
(Local Option Rent Stabilization) 법안의 통과  
를 촉구했다. 세입자들과 정치인, 주택 전문가들

### 〈전체 기사 읽기〉

은 주청사 그랜드스테이에서 청문회를 갖고 각  
회를 행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추진 중인 렌트 안정화 법안(H.2328 &  
S.1447)은 임대료 인상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되 최대 5%까지로 하고, 무과실 퇴거 금  
지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4 ▶▶10면으로 계속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내 집 마련·투자·재융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융자·재융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크!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미국인이 부르는 첫 한국 가곡 경연대회,  
보스톤서 개최**

비 한국어권 젊은 성악가를 위한 한국 가곡 콩쿠르  
8월 16일 토요일...보스톤 컨서버토리에서 열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이상원객원  
기자, 편집부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  
지 않는 미국의 젊은 성악가들이 부르  
는 이색 한국 가곡 경연대회가 처음으  
로 보스톤에서 개최된다.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주관하고 주  
보스톤 총영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한  
국가곡콩쿠르본선이 오는 8월 16일 토  
요일에 보스톤 컨서버토리의 솔리 홀

〈전체 기사 읽기〉  
(Sully Hall)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미  
국에 살고 있는 18세~29세의,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성악 전공자 또는 영 프  
로페셔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미국인 한국 가곡 콩쿠르는 한  
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심  
이 높아진 상태에서 미국의 젊은 성악  
가들에게 한국 가곡 ▶▶2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뉴욕서 K-뮤직나이트 무료 콘서트...김창완 밴드도

터치드, 먼데이필링 등 밴드 출연... 뉴욕 8월 6일 링컨센터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무료 콘서트, K-뮤직 나이트(K-Music Night)가 8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뉴욕 링컨센터의 야외 공연장 '담로스쉬 파크(Damrosch Park)'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는 김창완밴드, 슈퍼루키 터치드(TOUCHED), 먼데이 필링(Monday Feeling)이 출연해 K-밴드 음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선보인다.

김창완밴드는 밴드 '산울림'의 리더이자 멀티 아티스트 김창완이 이끄는 그룹으로, 올해로 결성 16년째를 맞았다. 산울림의 명곡들을 재해석하거나 독창적인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폭넓은 세대의 공감을 얻고 있다.

혼성 4인조 밴드 터치드는 제31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대상 수상, Mnet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션' 최종 우승 등을 거치며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은 신예 밴드로, 이번 공연

을 통해 북미 공식 데뷔 무대를 갖는다. 최근 K-밴드의 열풍을 선도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2016년 데뷔한 록 밴드 먼데이필링은 하드록 라이징 페스티벌 부산지역 우승, 평택 록페스티벌 우승에 이어 2018년 미국 투어로 주목을 받는다.

뉴욕한국문화원 한호 프로그램 디렉터는 "K-뮤직 나이트는 매년 색다른 매력의 한국 음악을 뉴욕 시민과 나누는 자리"라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을 대표하는 록 밴드들이 자유, 청춘, 열정을 노래하며 희망찬 미래를 향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콘서트는 무료이며 별도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문화원 홈페이지(korean-culture.org) 또는 "썸머 포 더 시티(SummerfortheCity.org)"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 미국인이 부르는 첫 한국 가곡 경연대회, 보스톤서 개최

▶▶1면에 이어서

을 알리고 한국의 언어와 역사, 한국인의 정서 등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예술협회는 올해 초부터 성악 전공자들이 구독하는 오디오 소식지와 음악대학 교수들에게 발송되는 이메일을 통해 이 대회를 홍보했으며, 예선 마감인 지난 5월 초까지 20여 명의 지원자가 지정곡과 자유곡을 연주하는 영상을 제출하였다.

본선에 오른 10명의 연주자들은 보스톤은 물론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 오하이오, 메릴랜드, 뉴욕 등 여러 다른 지역 출신들이다. 이들은 이날 관객 앞에서 연주회 형식으로 경연을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1등 \$2000, 2등 \$1000, 3등 \$500의 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본선 연주자는 모두 소정의 여행 지원금을 받는다.

본선 심사위원은 김여경 교수(성악, 유니버시티 오브 데이튼), 나유선 교수(성악, 벙커 힐 커뮤니티 컬리지), 이윤지 교수(작곡, 버클리 음대), 이자이 제스 무노즈 교수(성악, 보스턴 컨서바토리), 앨리스 트레이너 교수(성악, 보스턴 유니버시티)



가 많았고, 성악반주로 많은 경력을 쌓은 피아니스트 이은경 씨가 반주를 담당한다.

한국 가곡(예술 가곡)은 개화기 이후 들어온 서양 음악의 영향으로 1920년대에 만들어졌다. 한국어 시에 서양 음악 스타일의 선율과 반주가 결합된 장르이다. 일제 강점기와 광복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00여년을 이어오며 삶의 애환과 그리움이 담긴 많은 명곡들이 만들어졌고, 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예술협회 측은 "2년 정도의 구상과 준비를 거쳐 드디어 한국 가곡 콩쿠르를 개최하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다. 후원해 주시는 총영사관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미국

전역에 광고를 내고 개최하는 한국 가곡 콩쿠르는 우리가 처음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셔서 연주자들에게 박수와 격려도 보내주시고, 감동도 받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행사 정보)  
한국 가곡 콩쿠르 (Korean Art Song Competition for Young Singers)  
일시: 2025년 8월 16일 (토) 오후 3시  
장소: Seully Hall, Boston Conservatory at Berklee (8 Fenway, Boston, MA, 4층)  
티켓 및 정보: kcsboston.org (무료 입장이나 사전 등록 필요)  
bostonkorean@hotmail.com

# 주정부, 히트펌프 사용 가정에 겨울 할인 요금 혜택

### 11월 1일 전에 각 유틸리티 회사에 연락해 확인해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공공 유틸리티부(DPU)는 주내 모든 히트펌프 사용 고객들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DPU는 최근 에버소스(Eversource)에 히트펌프 요금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모든 전기 유틸리티 고객이 히트펌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고객은 이번 겨울 동안 평균 54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여름, DPU는 유니틸(Unitil) 전기 고객을 위한 계절별 히트펌프 요금을 승인했으며, 2024년 9월에는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 고객을 위한 유사한 요금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에버소스 요금 승인으로 이제 모든 전기 유틸리티 고객이 히트펌프 할인 요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요금은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매년 겨울에 제공된다.

새로운 요금을 이용하려면, 매사추세츠 주요 전력 공급 유틸리티 회사인 에버소스, 내셔널 그리드, 유니틸의 고객이어야 하며, 가정에 히트

### 〈전체 기사 읽기〉

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2025년 11월 1일 시작되는 겨울 난방 시즌 전에 전기 제공업체에 계절별 요금 가입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저소득층 할인 프로그램에 가입된 전기 유틸리티 고객도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새 계절별 요금에 가입할 수 있다.

매스세이브(Mass Save)를 통해 히트펌프를 설치한 고객은 자동으로 새 요금에 등록될 수 있으나, 전기 유틸리티 제공업체에 확인 전화를 걸어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DPU의 제임스 반 노스트란드의장은 "히트펌프 채택이 주 전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할인 요금은 겨울철 난방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히트펌프 가정에 대한 계절별 요금은 고객들에게 실제로 금전적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절별 요금은 전기 유틸리티의 평균 기본 배급 요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된다. 또한, 이 새로운 요금은 다른 전기 고객에게 재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히트펌프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새로운 요금으로 인해 겨울철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

bostonkorean@hotmail.com

# 매사추세츠, 중개수수료 세입자 부담 금지 8월 1일부터 시행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25년 8월 1일부터 매사추세츠 주에서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broker fee)를 요구하는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중개수수료 세입자 부담 금지법은 2026 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포함되어 7월 4일 모라 힐리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확정됐다.

지금까지 보스톤을 포함한 매사추세츠에서 렌트하려면 집세 외에도 첫 달 월세, 마지막 달 월세, 보증금과 함께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이 중개수수료는 보통 한 달 치 월세에 해당해 임주비용이 1만 달러를 훌쩍 넘는 경우도 많았다. 매사추세츠의 평균 월세가 약 2,500달러, 보스톤의 평균 월세가 3천달러를 상회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힐리 주지사는 올해 초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에게 불공정한 비용이며, 본인이 고용하지도 않은 사

### 〈전체 기사 읽기〉

람에게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주택 시장 분석가들은 집주인들이 중개수수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오히려 월세를 인상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시장가격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결국 주거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에드 어거스타스 매사추세츠 주 하우징 및 커뮤니티 장관은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미 높아진 이사 비용을 더욱 올리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중개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므로써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종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청담귀, 신수유, 상항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이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별된던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http://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 매사추세츠 대형 바이오 회사 모더나, 500명 감원

2027년까지 15억 달러 지출 삭감 목표  
코로나 이후 수요 감소 · 치열한 백신 경쟁에 대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팬데믹 시절 코로나 백신으로 스타덤에 오른 바이오 테크 회사 모더나(Moderna)가 7월 31일 전체 직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500명 이상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7년까지 약 15억 달러의 운영비를 절감하려는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이다.

모더나는 올해 초부터 연구개발, 생산, 일반 운영 부문 등 전반에 걸쳐 비용을 줄여왔으며, 이번 인력 감축은 그 연장선 상에 있다. 스테판 방셀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가능한 인력 감축은 피하려 했지만, 현재의 비즈니스 현실에 맞는 비용 구조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들과 차별해야 하는 이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라며, 회사의 어려움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전체 기사 읽기〉

모더나는 2024년 말 기준 약 5,8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번 구조조정 이후 2025년 말까지 전 세계 직원 수는 5,000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모더나의 핵심 백신 사업은 팬데믹 이후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수요와 매출은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도 제한적 조건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 출시는 경쟁이 치열해 당초 기대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모더나는 최근 독감 백신 개발 임상에서 주요 목표를 달성해 향후 코로나 · 독감 · RSV 3종 복합백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반(反)백신 정서 확산, 공실률 증가, 바이오 업계 전반의 투자 감소 등 여러 외부 변수들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 트럼프 행정부, IRS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 폐지 추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 국세청(IRS)이 미국 납세자들을 위한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인 ‘디렉트 파일(Direct File)’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빌리 롱(Billy Long) 국세청장은 7월 28일 열린 세무 전문가 정상회의에서 “디렉트파일은 이제 폐지됐다”고 단언했다.

롱 청장은 행사에서 “직접 신고(Direct File)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사라졌다. 내가 그걸 깨끗이 없애버렸다”며 “나는 디렉트파일보다 디렉트 오딧(Direct Audit)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24년 12개 주에서 디렉트파일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추가로 13개 주로 확대해 운영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약 3천만 명의 납세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세금 신고를 직접 IRS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금 신고 시즌 동안 약 30만 명이 디렉트파일을 이용했으며, 이 중 94%가 해당 서비스를

〈전체 기사 읽기〉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대규모 정책 지출 법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폐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IRS 대변인은 CNBC에 보낸 성명을 통해 “롱 청장은 IRS의 현대화와 납세자 경험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디렉트파일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성과 민관 협력 대안에 대한 재무부의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2024년 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디렉트파일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디렉트파일 프로그램이 폐지되더라도 납세자들은 여전히 무료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IRS는 민간 세무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협력해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조정총소득(AGI)이나 거주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IRS는 자원봉사자 소득세 지원 프로그램(VITA)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이 \$67,000 이하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s://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 보스톤 또 로드레이지 ... 퀸지 남성, 93번 도로서 차 멈춘 후 충격 가해

러시아워 고속도로 한가운데 정차, 총 꺼내 임신중인 피해자에 충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퀸지에 거주하는 마이클 브라겔(33)이 93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로드 레이지(Road Rage) 충격 사건과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브라겔은 25일 사우스보스톤 지방법원에서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폭행 2건, 살인미수 2건, 총기를 이용한 폭행 및 상해 시도 2건, 불법 탄약 소지, 총기 무면허 소지 등으로 기소됐으며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석금을 3,000달러로 책정했으며, 보석 시 브라겔은 GPS 전자발찌 착용, 피해자 접근 금지, 위험 물질 소지 금지 등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음 재판은 8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사건은 지난 7월 1일 발생했다. 오후 5시 21분경 임신 5개월이던 여성 운전자는 매사추세츠주경찰에 전화를 걸어 고속도로에서 총격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녀는

함께 차를 타고 있던 남성과 함께 사우스보스톤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했으며, 수사 당국에 따르면 당시 두 사람은 눈에 띄게 놀라고 불안해 보였다고 한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은 북쪽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픽업트럭 한 대가 과속으로 차선 변경을 반복하며 위협적으로 운전하던 중 자신의 차량과 충돌할 뻔해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했다.

트럭을 몰던 브라겔은 고속도로 중간에서 갑자기 차량을 멈추고 밖으로 나와 여성의 차량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다시 차량에 올라 탄 그는 고속으로 현장을 도주했다.

경찰은 피해 차량을 조사한 결과, 조수석 창문 아래에 총알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스치듯한 손상 흔적을 발견했다.

함께 타고 있던 남성이 사건 당시 용의자의 트럭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으며, 영상에는 트럭 뒷유

**〈전체 기사 읽기〉**

리에 "올타운 컨스트럭션(All-town Construction)"이라는 회사 로고가 찍혔다. 이를 통해 경찰은 해당 트럭이 올타운 소유의 빨간색 포드 F-350임을 확인했고, 관련 주소지를 추적해 브라겔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했고, 브라겔은 해당 특징과 일치했다. 두 피해자 모두 별도로 진행된 사진 배열 신원 확인에서 브라겔을 지목했다.

서퍽카운티 지검장 케빈 헤이든은 성명에서 "주내 가장 붐비는 도로에서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총을 발사한 이 행동은 극도로 무모한 것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했다"며 "피해자들이 공포 속에서도 침착하게 증거 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큰 도움을 준 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Z세대 5명 중 1명 우울증 경험...아시안은 여전히 터놓고 말 안해

문화적 낙인·언어 장벽·전문가 부족...아시아계 청소년 정신건강 '사각지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 청년(Gen Z) 5명 중 1명이 주요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경고 속에, 아시아계 청소년들은 여전히 정신건강 문제를 주변에 털어놓지 못한 채 침묵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7월 25일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Z세대의 정신건강 위기를 지적하며, 특히 아시아계를 포함한 유색인종 청소년들이 구조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전문가이자 비영리단체 '엘로우체어컬렉티브'의 이수진 치료사는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는 우울감이나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진다"며 "이로 인해 많은 아시안 청소년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조용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5~17세 청소년 가운데 정신건강 치료를 받은 비율은 백인 18.3%인 반면, 아시안과 라티노는 각각 10% 안팎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격차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장벽, 보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건강은 개인의 약함'으로 보는 문화적 낙인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보스톤대학교의 오사나 라퍼 박사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ADHD는 이제 유년기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팬데믹 이전부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표는 하락세였고, 특히 문화적 소수 집단은 회복 접근

**〈전체 기사 읽기〉**

이 더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문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는 점이다. 정신건강 전문가 중 유색인종 비율은 전체의 6%에 불과해, 아시아계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상담사를 만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는 치료 지속률과 효과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존스홉킨스대 키아라 알바레스 박사는 "정체성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지 못한 치료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다양성과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Z세대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소셜미디어도 꼽힌다. 라퍼 박사는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학업 압박, 부모의 기대, 여가 시간 부족 등이 더해지며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청소년보호단체 '비러브드 빌리지'의 자원봉사자 빅토리아 버치는 "청소년기 사회적 배제와 트라우마는 평생 영향을 준다"며 "회복과 통합 중심의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건강 시스템은 여전히 백인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통째 뒤에 가려진 아시안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한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하버드, 트럼프 행정부에 수천 명의 직원 기록 제출

## 국토안보부 리뷰 방침, 하버드에 급여기록 등 요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가 국토안보부(DHS)의 리뷰 방침에 따라 수천 명의 직원 관련 기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버드는 현지 및 전직 하버드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직원 기록 제출에 관해 통보했다. 앞서, DHS는 또한 급여(Payroll) 기록, 직원 명단, 기타 관련 문서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송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대해 여러 차례의 자금 삭감과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하버드를 압박해오고 있다.

하버드는 "학생들만 일할 수 있는 역할에 고용된 학생들의 I-9 기록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법(FERPA)과 관련된 검토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버드는 "연방 법에 따르기 위

해 요청된 기록을 DHS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단, 학생을 위한 역할에만 고용된 학생들의 기록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또한, DHS에 기록이 안전하게 보관될 것과, 해당 기록이 DHS 직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적으로 승인된 목적에만 사용될 것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버드는 매사추세츠의 최대 고용주 중 하나로, 20,000명이 넘는 풀타임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원 학생 노조(UAW) 소속의 데니시 자스왈은 "하버드와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연방 정부가 비시민 직원들을 계속 괴롭히면 이는 모두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류 제출 요청은 하버드의 국제 학생 기록 제출 명령과는 별개

이다. 4월, 하버드의 앨런 가버 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에 대해 하버드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이후, 연방 정부는 30억 달러 이상의 연구 자금을 취소하고 하버드의 인증을 위협하며, 여러 차례의 고소를 통해 하버드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하버드와 같은 캠퍼스들이 중국 정부와 너무 많은 협력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뚜렷한 증거 없이 유학생들이 "친하마스" 메시지를 퍼뜨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5월, DHS의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하버드가 국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하버드는 이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하버드는 지난 주 이민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하버드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트럼프 삭감에 주지사, 대학 및 연구기관에 4억 달러 긴급 투입

연방정부 과학 연구 예산 삭감에 맞서 매사추세츠 혁신 경쟁력 유지 위해 법안 발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전체 기사 읽기〉

자= 모라 힐리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 삭감으로 큰 타격을 입은 주내 연구개발(R&D)과 대학 교육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4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 법안을 7월 31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보스톤을 중심으로 한 대학·병원·연구기관의 연구직 및 교직 유지와 고용 창출, 혁신 프로젝트 지원 등에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원은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로 불리는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 추가 징수분과 주비상예비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통해 마련한다.

힐리 주지사는 성명에서 "연방 정부의 불확실성에 맞서, 매사추세츠가 자랑하는 세계적 수준의 보건 의료 및 가족을 위한 리더십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그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2억 달러는 매사추세츠의 준공공 개발금융기관인 매스디벨로프먼트(MassDevelopment)가 운용할 기금에 배정되며, 병원·대학·독립 연구기관에서 추진하는 공익성과 혁신성을 갖춘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이 기금은 별도의 이사회가 설치돼 관리, 감독하게 된다.

또 다른 2억 달러는 주립대학 및 공공대학의 연구, 교수직, 대학원 및 박사후 연구자 지원을 위해 적립된 기금에 배정되며, 해당 기금은

백만장자세 수익으로 충당된다.

최근 몇 달 사이 보스톤대학교(BU), 우스터 폴리테크닉(WPI), 클라크대, 하버드 케네디스쿨, 뱍스 칼리지, 바드 칼리지 그레이트 배링턴 캠퍼스 등에서 연구직 또는 강의직 해고 통보가 이어지며 대학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UMass 쉐넬리 칼리지의 마이클 콜린스 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연구 생태계에 엄청난 기여를 해온 매사추세츠의 생명과학 연구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스톤글로브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국립과학재단(NSF)과 보건복지부(HHS) 등의 연구 보조금 취소를 포함,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만 총 31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연구 지원금을 삭감했다.

유매스 도나휴연구소와 공공정책연구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매사추세츠는 연간 약 85억 7천만 달러의 연방 연구개발 예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8만 1,300개의 일자리, 78억 달러의 소득, 16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주 예산 책임자인 매슈 고즈코워츠 행정·재무장관은 "이번 법안은 우리 주의 경제뿐 아니라 명성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기관들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 일반 주택 구매자들 빠진 사이, 투자자들이 미 주택시장 장악

고금리·고가격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단독주택 매입 사상 최고치 기록  
대형 기관 줄고, 소규모 투자자 급증... 사무용에서 단독주택 임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의 높은 주택 가격과 고정된 고금리 속에서 일반 개인들이 주택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단독주택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9일 보도했다.

부동산 분석회사 코탈리티(Cotality)의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거래는 2025년 들어 단독주택(기존 및 신규 포함) 거래 중 약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탈리티가 해당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4년 중 최고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투자자의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랙스톤(Blackstone), 스타우드 캐피탈(Starwood Capital) 등 대형 사모펀드 중심이었던 시장이, 100채 미만을 보유한 소형 투자자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소형 투자자들이 전체 투자자의 약 25%를 차지한 반면, 대형 투자자들은 5% 수준에 그쳤다.

스트랜드 캐피탈(Strand Capital)의 라잔 바트 대표는 “이제는 블랙스톤 같은 대기업만의 게임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테네시주 채터누가, 인디애나폴리스 등에서 100여 채의 주택을 매입해 운영 중이다.

100채 미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집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매도자들로부터 할인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는 주택 재고가 쌓이고 일반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한 결과다.

스트랜드 캐피탈은 대략 25만 달러 수준의 단독주택을 타깃으로, 약 7만5천 달러를 다운페이먼트로 지불하고 1만5천 달러 가량을 리모델링에 사용한다. 이후 월 2천~2천200달러

**<전체 기사 읽기>**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연간 5%의 시세 상승을 기대해 3년 후 매각을 통한 수익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소형 투자자들은 펀드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어 보다 유연한 의사결정과 리스크 감수가 가능하며, 전통적 구매자들과 경쟁 없이 전액 현금 매입 등으로 거래를 빠르게 성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앰허스트(Amherst), 인비테이션 홈즈(Invitation Homes), 프로그레스 레지덴셜(Progress Residential) 등 대형 투자사들은 현재 보유 주택을 더 많이 매도하고 있으며, 신규 매입은 줄이고 있다. 앰허스트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크리스 아발로네는 “금리가 높아 매입 속도가 예전의 일부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이 같은 시장 변화는 주택 건설사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과거에는 대형 투자자들이 주택건설사들과 대량 거래를 통해 가격 할인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일부 지역에서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서, 소형 투자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이 제공되고 있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주택 건설사의 38%가 가격 인하를 시행 중이며,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JLL 살렛 지사의 케이스 서먼이 사는 “지난 1년 반 동안 단독주택 투자시장에 새로 진입한 고객만 12팀이 넘는다” 며, “기존에는 산업용 또는 사무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부유층들이 단독주택 임대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 버몬트 주지사, 이민단속에 주방위군 동원 요청 거부

필 스캇 주지사, 세부 계획 부족...임무 수행 동의할 수 없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버몬트주 필 스캇 주지사가 이민단속 임무에 버몬트 주방위군을 동원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버몬트 주정부는 이번 주 국방부에 해당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보스톤글로브가 7월 31일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인 스캇 주지사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일부 주에 요청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 단속 지원 요청에 대해 “해당 임무에 대한 세부 사항과 계획이 부족하다” 며 지원을 거부했다고 주지사 대변인 아만다 휠러는 밝혔다.

버몬트 퍼블릭 방송은 처음으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주방위군 대변인 조셉 브룩스는 이번 요청은 이달 초 국토안보부(DHS) 산하 ICE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 및 물류 업무에 10~12명의 주방위군 인력을 파견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해당 주방위군 인력들은 사건 관리, 사무 지원 등 행정적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기사 읽기>**

브룩스 대변인은 “이 임무를 지원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주지사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며 “스캇 주지사는 이를 거부했다” 고 말했다.

다른 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20개 주에서 방위군 병력을 이 같은 임무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캇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해 왔다. 그는 2020년과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피해왔다.

휠러 대변인은 “불법체류 중 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단속은 필요하다”는 점에 주지사도 동의한다” 면서도 “해당 임무는 연방 정부 내 다른 인력 배치로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세부 사항” 이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턴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사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에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매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련

# 애플의 기업가치 핵심 동력, 서비스 사업 '빨간불'

### WSJ, 서비스 사업 의존도 높아진 애플 ... 앱스토어·구글 계약 위협에 수익성 흔들릴 가능성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애플의 지난해 아이폰 판매량이 2015년과 거의 유사했음에도 지난 10년간 주가는 9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애플의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강화해 온 전략이 있으나 이제 이 같은 서비스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경고했다.

클라우드 저장공간인 아이클라우드(iCloud), 앱스토어(App Store) 유료 앱 판매 및 광고, 그리고 애플뮤직·애플TV+ 등 구독형 서비스는 2015년 이후 매출이 다섯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기기 판매 매출은 40% 증가에도 못미쳤다. 특

히 서비스 부문은 총이익률이 70% 이상으로, 30-40% 인하드웨어 부문에 비해 수익성이 탁월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애플이 서비스 부문을 별도로 공시하면서 투자자들이 애플의 높은 수익 구조에 더 높은 멀티플(Multiple)을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서비스 중심 성장 전략에 중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플 서비스 부문의 노른자위인 앱스토어 수수료는 규제 장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애플의 서비스 매출 중 약 30.2%는 앱스토어 수수료에서 받

생했다. 하지만 일부 앱 개발자들은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최근 개발자들이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앱을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경우, 애플은 수수료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애플은 해당 판결에 반발해 항소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유럽연합 또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통해 유사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익 모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악의 경우 순이익의 10%까지 감

**<전체 기사 읽기>**

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글과의 검색 계약도 위기다. 애플 서비스 부문의 또 다른 핵심 수익원은 사파리(Safari)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구글에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계약금이다. 이 계약은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애플 전체 매출의 6%, 서비스 매출의 24.5%를 차지하지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순이익 기준으로는 무려 19%에 해당하는 수익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에 승소한 후 이 계약을 폐기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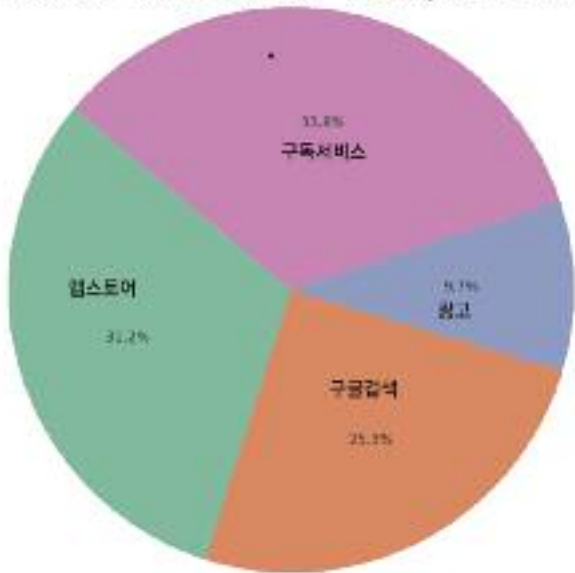
위의 핵심 서비스 사업 외에도 앱스토어 내 광고 수익은 물론 아이클라우드, 애플뮤직 및 애플티

비 등 구독형 서비스 수익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앱스토어 광고 매출은 9.4%를 구독형서비스매출은 32.7%다. 그러나 위의 핵심 수익원이 흔들릴 경우 대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앱스토어 수수료와 구글 계약이 흔들릴 경우, 이들을 대체할 수준의 수익원을 단기간 내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애플은 31일 6월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 둔화 및 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번 실적 발표는 애플의 고주식가치 구조가 지속 가능할지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 서비스사업분야 매출 구성도(2024년 기준)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PGA**

617.458.2733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 젊은 성악인을 위한 한국 가곡 콩쿠르

본선 음악회

8월 16일 (토)  
오후 3시

Sully Hall  
Boston Conservatory at Berklee  
8 Fenway, Boston, MA

본선 연주자



상금 \$4,000  
예선에서 선발된 10인 성악가



Amanda Densmoor  
SOPRANO



Jack Morin  
BARITONE



Xingchi Dong  
BARITONE



Jeysla Rosario Santos  
SOPRANO



Nathan Lê  
TENOR



Nan Sun  
MEZZO-SOPR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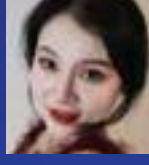
Anna Low  
SOPR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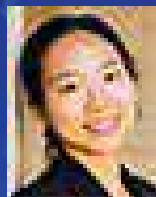
Samuel Yoon  
BARITONE



Samantha Martin  
SOPRANO



Zhe Nancy Xiong  
MEZZO-SOPR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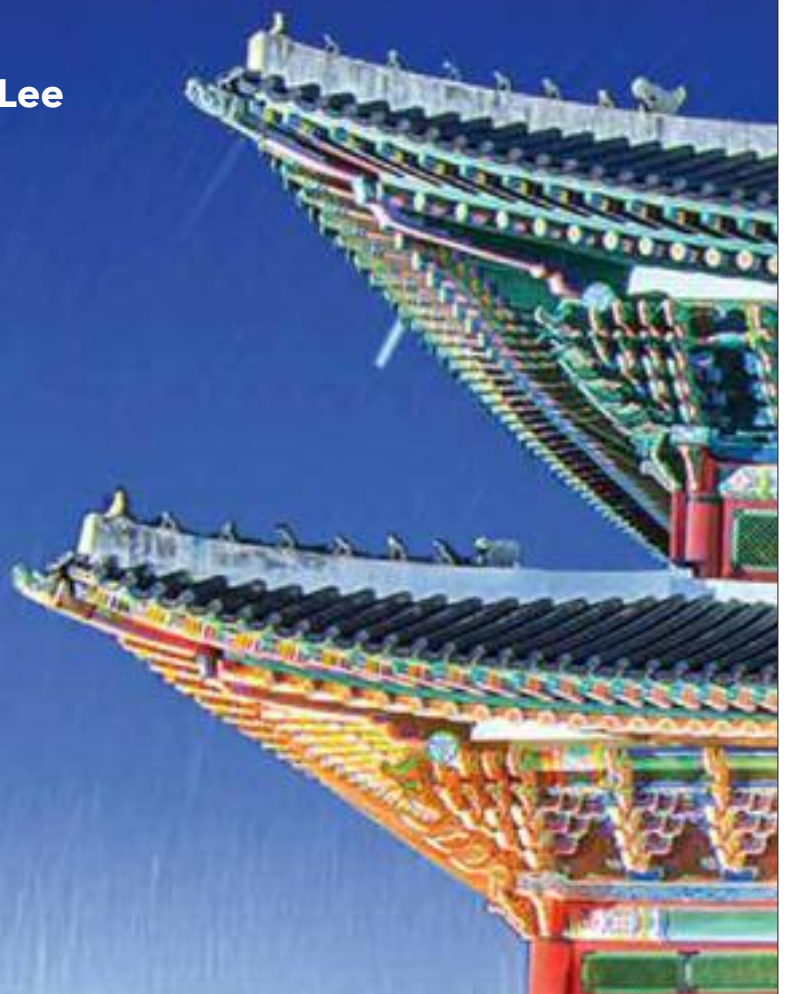


Eun Kyung Lee  
PIANO



등록 후 무료 입장  
[kcsboston.org](http://kcsboston.org)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주최  
주 보스턴 총영사관 후원



# MA 렌트컨트롤 폐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1면에 이어서

가구 이하 자가 거주 주택, 건축 5년 이내 신축 주택 등은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당 법안은 법안은 비영리단체 홈스포올매스(Homes for All Mass, HAM)가 매사추세츠 노조(SEIU), 매사추세츠 유권자 테이블(MVT) 등과 함께 1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을 통해 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2023년 보스톤시가 추진했던 렌트컨트롤 법안에 비해서는 좀더 강력한 법안이다. 미셸 우시장이 제안했던 렌트컨트롤 법안은 임대료 인상을 최대 10%까지 허용하고, 15년 미만의 신축 주택을 제외하는 등 완화된 법안이다. 이처럼 완화된 보스톤시의 렌트컨트롤 법률청원도 2023년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스프링필드에서 온 세입자이자 엄마인 엔비 토머스는 청문회에서 “어릴 때 여러 번이사를 다녀야 했고, 지금은 내 아이를 위해 안전하고 인간적인 집을 찾지조차 힘들다. 오늘 살 수 있는 집이라도 내일은 500달러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젊은 사람들이 매사추세츠를 떠나는 이유가 분명하다.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렌트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정된 주거는 삶의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그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0~2023년 사이 임대료 상승률은 약 80% 이상이었으며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CPI)은 약 40% 내외였다. 특히 보스톤 대도시권 지역은 미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임대료가 상승한 도시 중 하나였다. 2023년 기준 보스톤의 평균 렌트비는 월 3천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케임브리지 지역은 월 3천5백달러에 근접했다. 그 결과 많은 세입자들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쓰고 있으며, 이는 식비, 보육비, 의료비 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렌트비의 과도한 인상은 보스톤 매트루에 그치지 않고 보스톤 외곽 도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보스톤, 이스트햄프턴, 로렌스, 린, 메드퍼드, 리버, 서머빌, 스프링필드, 우스터 등 여러 도시의 시장과 시의원들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스트햄프턴 세입자 앤 스텡글은 “우리 아파트를 주 외부의 투자회사인 허리케인 프로퍼티스가 인수하자마자 임대료를 40~50% 올렸고, 겨우 5주 만에 응답하라고 통보했다. 세입자들은 겁에 질려 있고, 이사를 갈 곳도 없다”며 “이같은 투자회사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좌우하게 놔둘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서머빌 시장 카차나 발렌타인은 “가족들이 자신이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렌트 안정화는 입증된 해법이며, 퇴거를 막고 공동체를 지키는데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로렌스 시의원 셀리나 레예스는 “1994년 임대료 통제 금지 이후, 우리 지역 노동자들은 다시 주말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

구분	렌트컨트롤 (Rent Control)	렌트안정화 (Rent Stabilization)
정의	부가 임대료 자체를 고정하거나 아주 제한된 범위 내로 제한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등 특정 기준에 따라 일정 한도로 제한
강도	매우 강한 규제	완화된 규제
적용 범위	특정 연도 이전 건물, 특정 지역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보다 넓은 범위에 적용 가능하며, 자치단체가 선택 가능 (local option)
예외 조항	적용 (엄격한 통제)	많음 (신축 건물, 자가 거주 4세대 이하 건물 제외 등)
집주인 권리	수리비 반영 어려움, 수익 제한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	합리적 수준의 수익은 허용, 임대인 보호 조항 포함
퇴거 규제	강한 통제 (무과실 퇴거 거의 불가능)	'정당한 사유'(Just Cause)에 의한 퇴거만 허용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세입자들뿐 아니라 노조원, 자영주택 소유주, 목회자, 공중보건 전문가 등도 대거 참석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웨스턴 매사추세츠, 노스쇼어, 센트럴 매사추세츠, 사우스코스트 등 각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주민들이 주의사당으로 모였다.

비영리 단체 패밀리프로미스메트로웨스트(Family Promise MetroWest)의 프로그램 디렉터 스테파니 디디오는 “지난 3개월 간 상담 전화가 두 배로 늘었다. 많은 가정이 렌트비와 의료비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선택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렌트비 인상으로 쫓겨난 가정을 수용할 수 없다. 이 지속 불가능한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욕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CSS)의 옥사나 미로노바 정책분석가는 “100년 넘는 미국 렌트 규제 역사를 연구한 결과, 주거의 질이나 신규 개발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입자와 지역사회 안정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입증됐다”고 전했다.

### 왜 렌트컨트롤을 폐지했나?

1994년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렌트컨트롤 법안을 폐지했다. 당시 렌트컨트롤 법안은 강력하게 렌트비 인상을 억제했고 예외조항도 없어 집소유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억제했었다.

당시 렌트컨트롤 폐지를 추진했던 측은 다

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했다. 첫째, 렌트비를 제한하면 시장을 왜곡시켜 주택 건축의 인센티브가 적어지며, 주택 공급이 줄고 장기적으로 전체 주거비가 오히려 상승한다. 둘째, 저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높은 세입자도 낮은 비용으로 오래 거주하므로 공정하지 못하다. 셋째, 렌트비 통제가 집주인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유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주장은 대도시권이 아닌 보스톤 외곽의 매사추세츠 전체 유권자들, 특히 중도 보수적인 유권자와 집소유주들의 지지를 받아 주민투표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당시와 상황은 많이 다르다. 주택공급은 일부 증가한 측면도 있으나 다른 미국내 주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제한 없는 임대료는 크게 상승했다. 하버드 주택정책센터(JCHS)와 매사추세츠 정책계획위원회(MAPC)는 공통적으로 “매사추세츠의 주택 공급 부족과 규제 해제 이후 투기 자본 유입이 맞물린 결과”로 렌트비의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주거불안정을 심화시켜 매사추세츠주 이탈이라는 역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 렌트 안정화, 왜 필요한가

지난해 힐리 주시사가 서명한 주택 채권법(Bond Bill)은 51억 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을 담고 있지만, 실제 5년 내 지출 계획은 20

억 달러에 불과하다. 주정부는 2035년까지 22만2천 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산하지만, 이 법안으로 건설되는 물량은 4만 가구 정도에 그친다.

게다가 새로 공급될 주택의 대부분은 시장 기준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중저소득 가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MAPC와 하우스네비게이터MA(Housing Navigator MA)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68%는 적절한 임대주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렌트비 인상 상한이 없기 때문에, 외부 대형 투자사들이 지역 주택을 인수하고 무제한 인상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렌트안정화, 부작용도 고려해야

렌트 안정화 법은 만능해법은 아니다. 여전히 부작용의 우려가 존재한다. 렌트비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투자를 꺼리게 돼 주택 신축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5-15년까지 유연한 예외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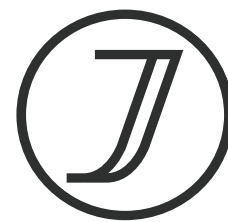
또한 렌트비 인상에 수리 및 유지비를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 주택의 노후화 및 방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익 보장은 물론 유지 보수 의무화가 따라야 한다.

이외에도 과거 렌트컨트롤 폐지의 원인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여러 가지 법률적 보완이 뒷받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 연준, 금리 5연속 동결...이사 2명, 파월의장에 맞서 인하 주장

FOMC "불확실성 여전" 지적하며 4.25~4.5% 유지...한미 금리차 2.0%p 연준 이사 보먼·월러, 0.25%p 인하 의견내고 트럼프의 압박에 힘써

〔워싱턴 뉴욕=연합뉴스〕 조준형 홍정규 이지현 특파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또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공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다섯 번의 FOMC에서 5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한미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2.0% 포인트(p)를 유지했다.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  
기미연준, 금리 5연속 동결...이사 2명, 파월의장에 맞서 인하 주장(종합 2보) - 2

연준은 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지표들은 상반기에 경제 활동의 성장세가 둔화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힌 뒤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은 견조하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다"면서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은 2021~23년의 고점 대비 두드러지게 완화했고, 예상치를 웃돈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기 대비 연율 3%)이 이날 발표됐지만 민간 기업과 소비자 수요는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의 물가 상승 압박이 앞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위원 12명 중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해 9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했고, 미셸 보먼(연준 부의장)·크리스토퍼 월러(연준 이사) 위원은 0.25% 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동결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준 이사회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은행 총재 5명(지역 연은 총재 12명이 돌아가면서 표결)이 참여하는 FOMC에서 보먼, 월러와 같이 상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연준 이사 2명 이상이 동시에 소수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2년만이었고, FOMC 위원 2명 이상이 소수의견을 낸 것은 2020년 이래 처음이었다.

지난 6월 FOMC의 경우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국제 이자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잇따른 금리 동결에 강한 불만을 표해왔으며 이번 회의를 앞두고는 파월 의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다.

이날도 FOMC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예상치를 웃돈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기 대비 연율 3%)



기자회견에 나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을 거론하며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때 파월 의장 해임 검토설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워싱턴 DC의 연준 본부를 이례적으로 방문해, 과도한 예산 투입 문제가 제기된 연준 청사 개보수 현장을 둘러보는 등 파월 의장을 다각도로 압박했다.

연준 이사 2명이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압박에 힘을 실은 상황에서 오는 9월 중순에 열릴 차기 FOMC에서는 관세의 물가 상승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한 기준금리가 작년 12월 이후 9개월만에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 FOMC 결과 관

련 기자회견에서 금리 동결에 대해 "저와 대부분 위원은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 부적절하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완만하게 제한적인 정책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9월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9월(FOMC) 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얻는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주기를 자제했다. jhcho@yna.co.kr






## 소중한눈!!!

#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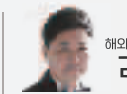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의의료시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 美 'AI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환자 의료기록 · 건강정보 공유

60개 의료 · 테크기업 정보개방 협약...삼성 · 구글 · 오픈AI 등 참여..... 프라이버시 침해 등 우려...트럼프 "본인 동의해야 정보 수집"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별 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한다.

미 보건복지부와 정부효율부(DOGE)는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60여개 기업과 'AI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협약을 맺었다.

이 시스템은 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보험서비스센터(CMS)가 주관하며, 구글 · 애플 · 삼성 · 아마존 ·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과 CVS 헬스 · 유니티드헬스 · 늬 등 헬스케어 기업, 보험사 등이 참여했다. 각 의료기관에 분산 · 단절된 환자의 정보를 통합 · 공유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이들 정보를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다.

또 AI가 혈당, 혈압, 체중 등을 토대로 발병 가능성을 사전 진단하는 한편, 희귀 · 난치병 진단에도 조언을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좌측)

앱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만큼 병원에 갈 때마다 문진표(clipboard)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중복 진료도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관리 시스템을 문진표와 팩스에서 벗어나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 것"이

라며 "환자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의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고, 의사는 즉시 정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일반인을 상대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스템은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보가 공유된다는 점에

서 프라이버시와 각종 윤리적 · 법적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공공보건 전문가인 로렌스 고스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AP 통신에 "미국 전역의 환자들은 자신의 의료 기록이 자신과 가족에게 해를 끼칠 방식으로 사용될까 봐 매우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서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데이터가 수집 · 공유되지 않는" '옵트인' 방식이며,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없다"고 강조했다.

zheng@yna.co.kr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 서울 7월중 '역대 가장 더운 밤' 보내... 열대야일 117년만에 최다

밤사이 기온 29도 아래로 안 내려가...이달 70%가 열대야  
서울 낮 최고 31~37도...중서부·남부 오존 짙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30일에서 31일로 넘어오는 밤 서울 기온이 29.3도까지만 떨어지면서 또 열대야를 보냈다.

이달 서울 열대야일이 22일로 늘면서 서울에서 7월 기상관측이 처음 이뤄진 1908년 이후 117년만에 7월 열대야일 최다 기록을 세웠다. 기존 최다 기록은 1994년의 21일 열대야일 기록이었다.

7월 밤이 하루 더 남아 이달 서울 열대야일은 23일까지 늘 수 있다.

다만 31일 밤이 열대야이든 아니든 이미 서울은 이달 한 달 중 70%가 열대야였던 상황이다.

만약 31일 중 서울 기온이 29.3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서울 7월 일최저기온 역대 최고치'도 바뀐다. 기존 최고치는 2018년 7월 23일 기록된 29.2도이다.

서울 밤더위만큼은 '20세기 최악

의 더위'가 나타난 1994년의 7월이나 '21세기 최악의 더위'를 겪은 2018년의 7월보다 이달이 더 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인천(31일 오전 8시 기준 일최저기온 28.3도)과 경기 수원(28.2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7월 일최저기온 최고치가 이날 달라질 수 있다.

경기 동두천(26.3도)과 파주(25.8도), 충북 청주(28.4도) 등은 일최저기온이 7월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날이 이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낮 더위도 이어진다. 낮 최고기온은 31~3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전·대구는 36도, 광주는 35도, 인천과 울산은 33도, 부산은 32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전북 정읍은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충남과 호남, 대구, 경북 등은 오존



서울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 대기오염물질이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이 형성되고, 이 오존이 이동하면서 오후 들어 중서부 일부와 남부지방 대부분에서 농도가 높겠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

다. 제주앞바다(북부앞바다 제외)와 남해동부바깥면바다에 31일까지, 제주남쪽면바다와 서해남부면바다에 8월 첫날까지 바람이 시속 30~60km(9~16)m/s로 불고 물결이 1.5~4.0m

로 높게 일겠다. 제주해안과 남해안에 더해 서해안에도 너울이 유입될 것이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어 들이칠 수 있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에어컨 없는 '찜통' 노점...불경기에 더 목타는 꽃시장 상인들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가뜩이나 땀뻣한데 에어컨까지 달아서 하루 종일 틀면 전기요금을 어떻게 감당해. 기자님이 어리셔서 물정을 아직 잘 모르는구먼."

전국에 폭염이 이어진 30일 오후 서울 종로꽃시장. 15년 동안 이곳을 지킨 80대 김모씨가 '왜 에어컨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이날 낮 종로3가부터 종로6가까지 약 3km를 걸어보니 길거리 가판대 대부분은 에어컨이 설치돼 더위를 피할 수 있었으나 이곳에서는 냉방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시는 2010년 종로 일대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꽃·묘목 노점 15여곳을 이곳에 모아 '노점 특화 거리'를 조성했다.

한낮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도

로 위를 차량 행렬이 지나며 열기를 토해내는 듯했다. 상가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들이 내뿜는 열풍까지 더해지며 시장은 사우나를 방불케 했다.

60대 김준한 씨 가게의 실내 온도는 이날 낮 동안 내내 3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김씨는 "한창 햇볕이 쬐 때는 38도까지 오르더라"며 "다른 가게에 비하면 이곳은 시원한 편"이

라고 말했다.

상인들이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전기요금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5~6㎡ 남짓한 좁은 노점에 에어컨까지 설치하기는 어려운 데다 노점들이 밀집해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박모(75)씨는 "아침 7시에 나와 오후 6시쯤 돌아가는데, 집에서 가져온 냉국도 금방 미지근해진다"며 "이렇

게 더운 여름에는 꽃과 식물도 적응하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의 목을 타들게 하는 것은 폭염뿐 아니라 끝 모르는 불경기다. 간간이 이곳을 지나던 행인 한두 명이 가격을 묻다가도 이내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곤 했다.

away777@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AUG. 1st - AUG. 7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GOCHUJANG DRIED SQUID BANCHAN

Spicy, chewy, and irresistibly tasty, you'll find yourself sneaking back to the fridge again and again.

냉장고를 열고 또 열게 될 매콤하고 쫄깃쫄깃, 자꾸만 손이 가는 맛! 오징어채 무침을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p>Shanghai Choy 청경채 LB <b>\$0.99</b></p>	<p>Yellow Dragon Fruit 노란 용과 LB <b>\$2.99</b></p>	<p>Korean Young/Round Squash 애호박/꽃호박 LB <b>\$2.49</b></p>	<p>DRISCOLL'S Strawberry 드리스콜 딸기 2 LB/PKG <b>\$6.99</b></p>	<p>SPEND \$60 AND MORE LIMIT 2 EA</p>	<p>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p>	<p>White Peach/Nectarine/Donut Peach 백도/백진도/도넛 복숭아 LB <b>\$2.99</b></p>	<p>Green Onion 파 BUN FOR <b>\$1.99</b></p>
<p>Lychee 리치 LB <b>\$1.99</b></p>	<p>Mini Cucumber 미니 오이 902/PKG <b>\$0.99</b></p>	<p>Longan 롱간 LB <b>\$2.99</b></p>	<p>Big Green Onion 대파 BUN <b>\$1.99</b></p>	<p>SugarBee Apple 슈가비 사과 GIFT BOX <b>\$24.99</b></p>	<p>Napa Cabbage 배추 BOX <b>\$15.99</b></p>	<p>Green Leaf Lettuce 청상추 BUN <b>\$0.99</b></p>	<p>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JUMBO EA <b>\$5.99</b></p>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U.S.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10.99</b></p>	<p>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 갈비 (바비큐용) LB <b>\$3.99</b></p>
<p>Frozen Cornish Hen 영계 LB <b>\$3.49</b></p>	<p>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티 LB <b>\$3.99</b></p>
<p>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b>\$8.99</b></p>	<p>Frozen Old School Soondae Korean Style Links 어묵류 두종순대 1.5 LB/PKG <b>\$9.99</b></p>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Frozen Red Snapper 홍도미 LB <b>\$8.99</b></p>	<p>Fresh Hybrid Striped Bass 양식 농어 LB <b>\$7.99</b></p>
<p>Frozen Silver Pomfret 은병어 300-400'S/LB <b>\$8.99</b></p>	<p>Head-on Shrimp 머리세우 30-30'S LB <b>\$5.99</b></p>
<p>Frozen Chilean Seabass Steak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LB <b>\$21.99</b></p>	<p>TONGTONGBAY Frozen Cooked Mussel Meat 동동배 홍합살 PRODUCT OF CHILE 200-300'S/LB <b>\$3.99</b></p>

### SMART CARD MEMBER ONLY

<p>HIMART SMART CARD ONLY NONGSHIM Beef Flavor Bowl Noodles 농심 소고기 사발면 <b>\$7.99</b> 3.03 OZ X 6 EA/PKG</p>	<p>HIMART SMART CARD ONLY NONGSHIM Spicy Kimchi Bowl Noodles 농심 김치 사발면 <b>\$7.99</b> 3.03 OZ X 6 EA/PKG</p>
<p>HIMART SMART CARD ONLY KWANGCHEON Kakao Friends Ryan Crispy Seaweed + Shopping Bag 광천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재래김 (장바구니 포함) <b>\$11.99</b> 0.17 OZ X 27 EA + BAG/PKG</p>	<p>HIMART SMART CARD ONLY KWANGCHEON Kakao Friends Apeach Crispy Seaweed + Shopping Bag 광천 카카오 프렌즈 어피치 재래김 (장바구니 포함) <b>\$11.99</b> 0.17 OZ X 27 EA + BAG/PKG</p>

<p>KOKUHO California Premium Rice 국본쌀 열매 무우 YELLOW 15 LB <b>\$12.99</b></p>	<p>OTTOGI Gomtang Myon Beef Bone Flavored Noodle Soup 오투기 사골곰탕면 15.52 OZ (4 EA/PKG) <b>\$4.99</b></p>	<p>SUNG GYUNG FOOD Pollock Roe Laver Flake 성결 멍란 톳자반 2.47 OZ <b>\$1.99</b></p>	<p>HAJO Seasoned Bean Paste (Ssam-jang)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 2.2 LB <b>\$2.99</b></p>	<p>PULMUONE Kimchi Dumplings 풀무원 김치손만두 25.4 OZ <b>\$6.99</b></p>
<p>THE HOUSE Korean BBQ Flavored Beef Patty 그 집 떡갈비 전동/매콤 떡갈비 ORIGINAL/SPICY 16 OZ <b>\$9.99</b></p>	<p>HAJO Japanese Style Noodles U-dong 해오름 우동면 2.75 LB (5 SERVINGS) <b>\$5.99</b> FOR</p>	<p>PULMUONE Crispy Potato Corn Dogs 풀무원 불모파 김자 핫도그 12.7 OZ <b>\$6.99</b></p>	<p>HAITAI Honey Butter Potato Chip 88태 허니버터칩 1.05 OZ X 12 EA/BOX <b>\$8.99</b></p>	<p>ORION Custard Soft Cake 오리온 카스타드 24.33 OZ (30 EA/PKG) <b>\$8.99</b></p>
<p>WOONGJIN Green Plum Drink 웅진 중핵 매실 50.72 FL OZ <b>\$5</b> FOR</p>	<p>DR. JUNG'S FOOD Vegemil Soy Milk 정식품 베지밀 두유 A (PLAIN)/B (SWEET) 6.42 FL OZ X 24 EA/PKG <b>\$13.99</b></p>	<p>Sannio/Snoopy Paper Cup 산리오/스누피 종이컵 9.6-13.1 OZ X 20 PCS/PKG <b>\$2.99</b> <del>\$3.99-4.99</del></p>	<p>Kimchi Bag 푸른생황 김치봉투 MEDIUM (21.6 X 31.5 INCH) LARGE (25.5 X 37.4 INCH) X LARGE (28.3 X 41.3 INCH) <del>\$1.29-1.99</del> 2 PCS/PKG <b>\$0.89-1.39</b></p>	<p>HOLIKA HOLIKA Aloe Soothing Gel 알로에 수딩젤 8.45 OZ EA <b>\$6.99</b></p>

## JINGA SIDE DISHES

"World authentic 'Koreans'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1.7888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online process, there may be inventory shortage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info@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b>이사 이계봉</b> DIRECTOR 781.654.5281 jeklee@bostonpremierrealty.com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크리스틴 손</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신보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김지현</b> 978.494.2043 jim@bostonpremierrealty.com	 <b>노미</b> 617.447.0501 nohmi@bostonpremierrealty.com	 <b>박주</b> 617.780.7639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b>장희</b> 978.866.3248 tjjang@bostonpremierrealty.com	 <b>이인주</b> 401.538.3397 tyyee@bostonpremierrealty.com
 <b>박소</b> 617.338.0787 so@bostonpremierrealty.com	 <b>그레이스 정</b> 617.455.7710 grace.jung@bostonpremierrealty.com	 <b>한수연</b> 617.528.6973 hansoyeon@bostonpremierrealty.com	 <b>민소</b> 213.503.0347 minso@bostonpremierrealty.com	 <b>박지</b> 413.507.1400 parkji@bostonpremierrealty.com	 <b>손정태</b> 617.913.3348 sonjungtae@bostonpremierrealty.com
 <b>최진진</b> 617.877.0387 jin@bostonpremierrealty.com	 <b>이영순</b> 781.836.3412 sooyoung@bostonpremierrealty.com	 <b>한혜숙</b> 781.959.1214 hanheesook@bostonpremierrealty.com	 <b>장혜향</b> 617.915.1162 hyun@bostonpremierrealty.com	 <b>이준규</b> 617.543.0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b>박희</b> 404.641.9192 parkheeb@bostonpremierrealty.com
 <b>Tammy Woolfolk</b>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b>Nancy Wang</b> 617.230.8482 nancywang11@bostonpremierrealty.com	 <b>Shirley Zhao</b> 857.53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b>Vivian Ye</b> 617.936.2713 vivianye@bostonpremierrealty.com	 <b>Xian Dole</b> 413.527.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b>Lu Jang</b> 248.449.0117 jjang@bostonpremierrealty.com
 <b>John Tran</b>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b>Rebecca Phu</b>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b>Michael Sorra</b>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b>Linda Tu</b>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b>Jun Wang</b>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b>Lily Wang</b>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b>Crystal Wei</b>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b>정혜민 박</b> 201.446.8995 min@bostonpremierrealty.com	 <b>재미크 김</b> 781.596.0409 dick@bostonpremierrealty.com	 <b>이신현</b>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b>Mini Belanger</b>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조선협력으로 돌파구...4천500억달러 투자·에너지구매로 실득

**서조선·반도체 등 3천억달러 '보증 중심 투자패키지'+1천억달러 에너지 구매  
미국 투자처 정하지만 조선 등 한국 기업 수혜 효과..."에너지도 통상 수입액 수준"  
일본·EU 등 경쟁국과 유사한 결과 얻어내고 쌀·소고기 '레드라인' 지켜내**

(충남·세종=연합뉴스) 박주영 한중구 양영석 기자= 한국이 총 4천500억달러(약 626조원)에 달하는 조선 중심 대미 '투자 펀드'(3천500억달러)와 에너지 구매 카드를 앞세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 제안에서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명명된 대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예상대로 한국 조선 산업 역량이 대미 관세 협상의 결정적 돌파구 역할을 해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한미 양국 발표를 종합하면, 한국은 앞선 일본과 EU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와 미국산 구매 약속을 제안하면서 8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와 4월부터 이미 부과 중인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25%로 예고된 상호관세는 15%로, 25%로 적용 중인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각각 낮아졌다. 일본·EU와 같은 조건이다.

먼저 우리 정부는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미국 측에 약속했다. '투자 펀드'로 언급된 이 투자 패키지는 앞서 일본이 제시한 5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기구'(investment vehicle)와 성격이 유사하다.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투자(equity), 대출(loans), 보증(credit guarantees)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개념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주요 국내 기업들의 대미 그린필드(생산시설 직접 투자) 투자 계획을 묶어 '1천억달러+알파(α)' 수준의 대미 투자 계획안을 제안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러트니 장관이 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4천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요구해 협상 구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에너지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방법과 달리 자국에서 큰 '이익'을 누리는 한국과 일본에 비용을 전가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

차별화된다.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투자 패키지의 규모는 일본의 60% 수준인 3천500억달러이다. 게다가 이중 실제 직



한화그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펀드' 투자 요구는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자원 마련이라는 큰 그림 차원에서 나온 요구였기에 한국도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가 감당할 범위에서 이 같은 요구를 대응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스 설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전하면서 가장 먼저 한국이 3천500억달러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언급해 '투자 펀드'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최우선 관심 사항으로 여기고 있음을 내비쳤다.

3천500억달러는 한국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20%의 규모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계획의 실상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국이 제공하는 투자에 따른 혜택이 상당 부분 한국 기업이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점에서 일본의 '투자 패키지'와

접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지분 투자의 규모는 극도로 한정되고 나머지 대출·보증에서도 배수 효과가 큰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그 중에서도) 체감으로는 보증이 제일 많을 것 같다"며 "우리는 펀드에 그 3가지 요소(지분투자·대출·보증)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무역 합의) 비망록에 적어냈고 그안에 에퀴티(지분투자)가 5% 미만일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역시 일본 정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일본이 제안한 5천500억달러의 투자 패키지도 직접 투자액은 1~2%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3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중심이 한국의 강점인 조선에 맞춰진 점도 일본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앞서 정부는 '마스가'로 명명된 대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대미 투자 펀드 3천500억달러 중 1천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 전용 펀드로 조성된다. 나머지 2천억달러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미국이 중요하게 육성하려는 전략 산업에 두루 투자하는 범용 펀드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이 한일 펀드로 육성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한국은 작년에만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에만 1천100억달러를 넘게 썼다.

김용범 실장은 "천억불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번 딜 때문에 추가로 없는 수요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동산을 미국산

으로 바꾸는 이런 정도의 구성 변화는 있지만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구매가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부흥 등 카드를 앞세워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 조건을 확보하면 서도 '레드라인'으로 간주했던 소고기와 쌀 등 농산물 개방에 관해서 현상을 지켜낸 것은 앞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주요국 대비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조선의 경우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운영 중인 한화그룹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 현지에서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거나, 미국 주요 조선사와 공동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사업자가 사실상 한국 기업밖에는 없다는 점에서 조선 펀드의 직접 수혜자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조선사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스를 중심으로 향후 장기간에 걸쳐 향후 1천억달러(약 139조원)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는 약속 역시 자국 유권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직관적인 숫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다만 에너지 수입 대국인 한국로서는 도입선 조절 정도로 충분히

으로 바꾸는 이런 정도의 구성 변화는 있지만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구매가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부흥 등 카드를 앞세워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 조건을 확보하면 서도 '레드라인'으로 간주했던 소고기와 쌀 등 농산물 개방에 관해서 현상을 지켜낸 것은 앞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주요국 대비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조선의 경우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운영 중인 한화그룹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 현지에서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거나, 미국 주요 조선사와 공동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사업자가 사실상 한국 기업밖에는 없다는 점에서 조선 펀드의 직접 수혜자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조선사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스를 중심으로 향후 장기간에 걸쳐 향후 1천억달러(약 139조원)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는 약속 역시 자국 유권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직관적인 숫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다만 에너지 수입 대국인 한국로서는 도입선 조절 정도로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과 관련해 구체적 쌀 수출 확대 성과를 자랑했던 일본 때와는 달리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수준의 원론적 언급만 했다. 우리 정부는 소고기 월령제나 쌀 수입 쿼터 조정 등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ha@yna.co.kr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JUL. 31<sup>ST</sup> - AUG. 7<sup>TH</sup>, 2025

**Hello Kitty Set**  
**헬로키티 3종 세트**

Soft Roll Tissue 12 Roll  
 + Kitchen Towel 12 Roll  
 + Wet Tissue 30 Sheets x 3P

Reg. ~~\$34.99~~ (1 EA/BOX)  
**\$19.99**

LIMIT 2



범촌식품  
 포항 발효  
**물회** **1+1+1**

포항의 맛 그대로!

Package of three  
 (물회 2 EA + 다시마 젓갈 1 EA)  
 10.58 OZ X 2 EA / 4.58 OZ X 1 EA / PKG

**\$8.99**

LIMIT 2

Sweet & Spicy  
 Cold Raw Fish Soup  
 다시마 젓갈 무료 증정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복수심에 타오르는 새 킬러... '존 워' 스펀오프 '발레리나'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정체 모를 암살조직이 집으로 들이닥쳐 아버지를 노린다. 어린 소녀는 다친 아버지를 도우려 적에게 본능적으로 총을 겨누지만, 부상이 심했던 아버지는 결국 눈앞에서 세상을 떠난다.

아버지를 잃은 이브(아나 데 아르마스 분)는 복수심과 분노를 안고 암살자 양성 조직인 '투스카 로마'를 찾아가 매일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토슈즈에 피가 맺히다 못해 무대가 핏자국으로 얼룩질 때까지 발레의 회전 기술을 연마하고, 체급이 맞지 않는 남성들과 겨루기 훈련을 한다.

몸집이 작고 힘도 달리는 이브가 번번이 남성들에게 밀리자, 무술 스승은 이런 조언을 건넨다. "넌 상대의 관에서 놀아나가지는 것이다. 판을 바꿔, 여자처럼 싸워." 수 없는 실패와 고통 끝에 이브는 약점을 감추고 가진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그만의 기술을 갖춰 간다.

이브는 부호의 딸 카틀라 박(최수영)을 보호하라는 첫 임무를 받아 그를 납치하려는 조직원(정두홍)으로부터 지켜낸 뒤 정식 암살자로 인정받는다.

'존 워' 시리즈의 스펀오프(파생작)로 제작된 '발레리나'는 아버지의 죽음 뒤 암살자로 길러지는 새 킬러 이브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인 최수영과 무술감독 정두홍의 할리우드 진출작이기도 하다.

영화는 '존 워 3: 파라벨름'(2019)에서 존 워가 루스카 로마의 수장인 '디렉터'(안젤리

카 휴스턴)를 찾아가는 때와 타임라인이 겹친다. 디렉터가 극장으로 찾아온 존 워의 부탁을 들어주며 "이번 일로 네 티켓은 소멸된다"고 말하는 3편의 대사가 이번에도 똑같이 나온다.

암살 대상들에 현상금이 붙고, 각 도시의 컨티넨탈 호텔에 암살자들의 정보가 모이는 기존 시리즈의 구도도 그대로 유지됐다. 존 워(키아누 리브스)도 짧게나마 등장해 군더더기 없는 액션을 선보인다.

이브는 힘이나 기술 모두에서 존 워보다는 한수 아래지만, 복수심이라는 내면의 불길과 특유의 유연함으로 금세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주변의 모든 물건을 무기로 차용하는 유연함은 그의 특기다. 이브는 차 문과 TV 리모컨, 접시, 프라이팬, 스케이트화 등 주변 사물들을 기민하게 무기로 활용한다.

이브가 아버지를 죽인 켈트 조직이 모여 사는 눈 덮인 산골 마을 할슈타트를 찾아가 무자비한 복수극을 펼치는 장면은 영화의 백미다.

마을 전체가 '킬러 양성소'인 것 같은 묘한 분위기 속에서 이브는 절대적인 수적 열세를 감당하며 싸운다.

눈과 얼음으로 덮인 골목과 계단을 오가는 이브의 액션은 토슈즈를 신고 무대를 미끄러지는 발레리나처럼 부드럽다. 화염방사기를 들고 '불의 응징'을 하는 모습에선 성장형 캐릭터의 '레벨업'을 지켜보는 느낌도 든다.

8월 6일 개봉. 124분. 청소년 관람 불가. one@yma.co.kr



# 블랙핑크 '뛰어' 뮤직비디오 유튜브 1억뷰 달성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의 신곡 '뛰어'(JUMP)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1억뷰를 달성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26일 밝혔다.

이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2시52분께 조회수 1억회를 넘어섰다. 지난 11일 공개된 지 15일 만이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팀 통산 49번째 역대 조회수 영상을 보유하게 됐다.

'뛰어'는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기타 연주와 개성 있는 멤버들의 목소리가 돋보이는 노래다.

뮤직비디오는 팬들의 머릿속에 블랙핑크의 음악으로 가득 찬 모습, 멤버들에게 열광하는 군중의 모습 등을 표현했다.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블랙핑크는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시작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프랑스 파리 등 총 16개 도시를 순회하는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진행하고 있다.

cjs@yma.co.kr



# KOREAN HERITAGE NIGHT 08.22

우스터와 함께하는 특별한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KOREAN  
CONSULATE  
GENERAL  
IN BOSTON



티켓구매

**Polar Park**

100 Madison St.  
Worcester, MA 01608

**6:00 P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23) 최고점에 오른 주식시장

미국 투자자들은 2025년 상반기 동안 롤러코스터 같은 주식시장(S&P 500)의 급락과 급등을 경험했다. 특히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단 이틀 만에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주식시장 역사상 다섯 번째로 큰 폭락이었으며, 약 6.6조 달러(\$6.6 trillion)에 달하는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렇게 암울하던 시장은 불과 두 달 만에 20% 이상 반등했다. 1950년 이후 두 달 사이에 주식시장이 20% 이상 상승한 경우는 다섯 번뿐이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이미 여섯 번이나 최고점을 경신했다.

언론들은 연일 시장의 상승세를 보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하게 된다. 주식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Buy Low, Sell High)' 는 것이지만, 최고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닐까, 투자 직후 폭락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50년 이후 두 달 사이 20% 이상 상승한 시기는 다섯 번뿐이다.

- 1998년 12월 상승 후 6개월 뒤에는 11%, 1년 뒤에는 19% 상승.
- 2009년 4월 금융위기에는 6개월 후 20%, 1년 후 36% 상승.
- 2020년 5월 팬데믹에는 6개월 후 21%, 1년 후 40% 상승.

즉, 주식시장이 최고점에 도달한 뒤에도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통계적으로 4년 중 3년은 상승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이 최고점을 경신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1990년 이후로 매년 평균 20번 이상 최고점을 갱신해왔다. 미국 주식시장은 언덕을 올라가는 아이의 요요와 같다. 당시에는 최고점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저점이 되는 경우도 많다. 주식시장은 꾸준히 상승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익을 얻었을 때 보다 손실을 봤을 때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특히 최고점에서의 투자를 더 두려워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내가 투자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 는 두려움을 갖는다.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투자의 목적과 기간에 따라 위험성을 조절  
예를 들어, 10년 이상 장기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라면 다소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반면, 이미 은퇴한 사람은 안정성을 더 중시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
2. 균형 잡힌 투자 포트폴리오가 필요  
주식, 채권, 현금 등 자산을 분산해야 한다. 지난 90년간 주식은 연평균 약 10%, 채

권은 약 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채권 수익률은 낮지만, 그만큼 위험도 낮다. 포트폴리오 구성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어떤 종목이 오를지 알 수 없기에 분산 투자

미국 주식, 해외 주식, 대형주, 소형주,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해야 한다. 채권도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은 기업 실적 개선, 연준의 금리 인하, 무역 관세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의 요인으로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워런 버핏은 “주식에 투자하면 50% 폭락할 수 있다” 는 가능성도 항상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노후 자금 마련은 몇 년이 아닌 몇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과제이다. 주식시장 역사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 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좀비딸' 필감성 감독 "좀비와 가족 될 수 있냐"에 매료돼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원작이 가진 질문이 좋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좀비가 된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좀비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저를 자극했습니다."

영화 '좀비딸'의 필감성 감독이 29일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작의 이런 점에 매료돼 작품을 연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좀비딸'은 맹수 전문 사육사 정환(조정석 분)이 좀비 바이러스에 걸린 딸 수아(최유리)를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다. 이윤창 작가가 쓴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

필 감독은 "사춘기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원작은 너무 와닿는 슬픈 이야기였다"며 "이를 유쾌하고 위트 있고 페이스스(애수) 있는 톤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매력적이었다.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작 팬으로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원작의 지점을 영화

에서도 살리려 했다고 설명했다. 좀비로 변한 뒤 인간과 살기 위해 가족들과 훈련하던 수아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수업을 듣는 장면이 그중 하나다.

필 감독은 "개인적인 호(好)도 있지만, 주제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봤다"며 "정환이가 그렇게 보호하지 않더라도 수아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정환이 보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작자가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했다"는 후문도 들려줬다. 원작자는 영화에도 깜짝 등장한다. 필 감독은 "너무 감사하게도 그림을 직접 그려주셨는데, 그것이 나중에 중요한 소품으로 쓰인다"고 귀띔했다.

'좀비딸'에는 좀비로 변한 딸을 연기한 최유리를 비롯해 조정석, 이정은, 조여정, 윤경호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동했다.

필 감독은 "배우들 모두 제 '원픽'(1순위)이었는데, 흔쾌히 다들 응해주셔서 너무 다행이었다"며 "특히 처음 원작을 볼 때부터 조정석 배우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

다. (출연 못 하는 일은) 상상하기도 싫다"고 웃음 지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고양이 '애옹이'도 오디션을 거쳐 캐스팅된 정식 배역이다. 애옹이는 원작의 인기 많은 캐릭터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필 감독은 "고양이는 훈련이 안 되는 동물이어서 주변의 우려가 컸다"면서도 "애옹이가 '좀비딸'의 정체성이자 '솔'(soul)이라고 생각했다. 애옹이 없으면 안됐다"고 말했다.

가수 보아의 곡 '넘버 원'(No.1)도 영화의 주요 소재다.

필 감독은 "좋아했던 보아씨 노래였고 곡이 가진 느낌이 영화와 잘 맞다고 생각했다"며 "변한 그를 욕하지 말아줘", 'You're still my No.1'(넌 여전히 나의 넘버원) 등의 가사도 영화와 맞는 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오는 30일 개봉을 앞둔 '좀비딸'은 '전지적 독자 시점', 'F1: 더 무비',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 등 여름 대작들을 제치고 이날 예매율 1위에 오르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필 감독은 "너무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관객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떨리고 걱정된다"고 했다. "좀비물이라는 쫄깃한 장르이면서도 따뜻한 감동과 코미디가

있어요. 이런 점들이 배우들의 앙상블과 잘 어우러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무해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encounter24@yna.co.kr

8월 3일 - 8월 9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희망적인 출발을**

- 운수: 평소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한가지 하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 금전: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보세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그만큼 따라오는 것이 커지고 수확도 보장됩니다. ● 애정: 희망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뜻이 잘 맞는 상대를 만나서 서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3, 7일 길일. 5, 8일 주의.

**소띠 | 마음을 잘 다스려야**

- 운수: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군요. 편안해지고 싶은데 괴로울 일이 생기고 웃고 싶은데 화날 일이 생기니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 금전: 과감하게 도전하면 도리어 피로가 겹치고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주위와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친바람이 도는 시기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

**범띠 | 한 번 더 생각하고**

- 운수: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 금전: 힘들다고 해서 지금 현실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려 버리면 훗날 찾아오는 복을 차버린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애정: 아직도 풀릴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군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서로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

**토끼띠 | 스스로 경계를 하여**

- 운수: 항상 자신이 무대에 올라 주목이나 관심을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객석에서 열심히 손뼉을 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거래하는 일로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서두르지 말고 스스로 경계를 하여 피해를 줄이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 애정: 가슴속에서는 천만 가지 말이 떠올라도 묵묵히 참고 지나가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6, 9일 길일. 5, 8일 주의.

**용띠 | 풍성한 대화를 나누고**

- 운수: 음식이 양지로 변하니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도 되 살아납니다. 원하던 일이 손조롭게 진행되어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 금전: 금전적으로 유리한 운을 만나니 여러 면에서 잘 풀려나갑니다. 이익도 따를 것입니다. ● 애정: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되는 사랑이 훈훈한 시기입니다. 모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풍성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7, 8일 길일. 3, 9일 주의.

**뱀띠 | 지출을 줄여야**

- 운수: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는 일도 잘 되는 법입니다. ● 금전: 해결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데 금전용량이 잘 안 되고 있군요.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 애정: 자꾸 어긋나는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사랑하는 사람이 반응이 없다면 상대를 난처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5, 8일 길일. 7, 9일 주의.

**말띠 | 내실 있게**

- 운수: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기 쉬우니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들어주세요. 좀 더 내실 있게 해야겠습니다. ● 금전: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일이 많아 주머니에 돈이 고이지 못하고 들쭉날쭉한 상태입니다. ● 애정: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를 바로잡으려 해도 내 힘이 미치지 못하니 가만히 있으세요. 02, 90, 78, 66, 54, 42년생은 6, 9일 길일. 3, 8일 주의.

**양띠 | 넉넉한 마음으로**

- 운수: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감을 주는 경험해보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에게 포용력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금전은 들어오지만 지출할 일이 많아 돈이 주머니에 고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애정: 어딘가에 얽매는 인생을 살아가지는 마세요. 서로를 구속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4, 5일 길일. 3, 9일 주의.

**원숭이띠 | 달콤하기는 최고인**

- 운수: 다른 사람에게 호감 줄 수 있는 때입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한마디의 말과 행동이 인덕을 쌓는 길이 될 것입니다. ● 금전: 특히 주택이나 사업체 매매 등 문서상의 일처리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금전적으로 이익이 따르니 기쁨도 가져다줄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의 감정에 빠져 귀가 먹고 눈이 멀어도 달콤하기는 최고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8, 9일 길일. 4, 7일 주의.

**닭띠 | 좋은 방향으로**

- 운수: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꾸준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그동안 걱정하던 계약이나 서류 관계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갑니다. 금전도 유리하게 풀릴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성의가 상대에게 알려지고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상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4, 7일 길일. 5, 9일 주의.

**개띠 | 사랑을 고백할 때**

- 운수: 평소 계획했던 것을 실행에 옮길 기회가 옵니다. 망설이면 자신만 손해이니 용기를 가지고 밀어붙이세요. ● 금전: 재물 운이 좋아서 지금 회전이 유리하게 잘 풀려나갑니다. 수지 균형도 양호한 편입니다. ● 애정: 짝사랑에 외기러기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을 더는 귀우지 말고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던 사람은 용기를 내어 사랑을 고백해보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5, 7일 길일. 3, 6일 주의.

**돼지띠 | 이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 운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대 심리가 도리어 일을 그르치게 하거나 일이 꼬이고 지연되게 할 수 있습니다. 동업은 피해가야 합니다. ● 금전: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면 손해가 클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사소한 일로 애정에 금이 갈 우려 있습니다. 서로에게 애정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6, 9일 길일. 4, 7일 주의.

# 김남길 "총기 소재지만,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이야기"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대한민국은 '총기 청정국'이라고 불린다.

경찰이나 군인을 제외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총을 만져볼 일이 거의 없다. 최근 인천에서 사체 총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지만, 총기 테러 뉴스 대부분은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사고다.

그런 한국에 총기가 유통되고, 마음에 울분이 가득한 사람들 손에 총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는 이 같은 상상력에 기반해 총기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는 21세기 한국의 모습을 그렸다.

'트리거' 속 정의로운 경찰 이도(김남길)와 해맑으면서도 섬뜩한 악당 문백(김영광)을 각각 연기한 김남길과 김영광을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잇달아 만났다.

◇ 김남길 "이도, 답답했던 때도 있었지만 결국 이해"

김남길은 '트리거'에서 총을 누구보다 잘 다루지만, 총의 무서움도 잘 아는 군인 출신 순경 이도 역할을 맡았다.

김남길은 "국민의 절반이 군 경험을 통해 총을 다룰 수 있는 나라에 총기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작품의 설정이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출연을 결심한 계기를 밝혔다.

'트리거'는 총을 중심에 둔 이야기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총기 사용을 정당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담아낸다.

김남길 역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 작품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며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를 죽여서 얻어지는 평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인 총기 액션에서는 총으로 악당을 응징하거나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다"며 "'트리거'에서는 총을 든 사람을 총으로 제압하기보다는 맨몸 액션 등을 통해 자제시키려고 했다. 폭력을 폭력으로 잡지 말자는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다.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총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만든 것은 아니고, 판타지적인 요소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놀랐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작품이 공개되자 누구보다 뛰어난 명사수인 이도가 최대한 비폭력적 선택을 하는 모습이 답답하다는 시청자들도 많았다.

김남길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봤고 저도 연기하며 답답했던 때도 있었다"면서도 "이 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복수를 반복하면서 극한으로 치닫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 저 역시 그게 맞는 생각이라고 이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열혈사제' 시리즈에 이어 연달아 정의의 사도 역할을 맡았다.

김남길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좀 더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며 "그런 생각이 확장돼서 이런 캐릭터를 맡게 된 것 같은데, 의도한 바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체계도 비겁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만 한다면 아주 비겁하게 잘 해낼 수 있다"고 웃음 지었다.

김남길은 장르물에 잘 어울리는 배우로 꼽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로맨스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고도 했다.

"다음에는 액션이 가미된 누아르 로맨스를 해보고 싶어요. 액션 연기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는 습관적으로 맞고 때리는 장면이 연상되는데, 그러니 액션이 들어간 로맨스였으면 좋겠네요."

◇ 김영광 "명대사는 '문백이는 참지 않지!'"

'트리거'에서 매사 진중하고 고민이 많은 이도 옆에 붙어있는 사람은 문백이다. 처음에는 미스터리한 조력자로 등장하며, 함께 사건을 헤쳐 나가지만 극 말미에선 이 모든 일을 일으킨 빌런(악당)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김영광은 가슴에 복수심이 응어려져 있는 시한부 악당 문백을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장난기 많으면서도 섬뜩한 이미지로 표현했다.

그는 "문백이란 인물은 이중적인 면이 있다. 처음에는 갑자기 이도 앞에 나타난 '초딩'(초등학생) 같은 이상한 애처럼 보이고 싶었다"며 "뒤에는 섬뜩해지는 빌런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문백의 개구쟁이 같은 인상은 대사와 표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영광은 "스스로를 삼인칭으로 칭하는 '문백이는~' 같은 대사가 너무 부끄러웠지만, 감독님이 강하게 주장해서 몇 번 했다"며 "명대사는 역시 '문백이는 참지 않지'다. 다른 멋진 대사들보다도 사람들이 이 대사를 좋아하더라"고 웃었다.

시한부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피폐해지는 모습을 표현해야 해 그는 스타일링에 대한 의견도 많이 냈다.

김영광은 "제가 원래 새치가 많은 편인데 이를 그대로 살리고, 일부분 더 하얗게 칠하기도 했다"며 "극 초반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메이크업은 좀 더 초췌해지고, 대신에 의상은 더 화려하게 입으면서 스스로를 감추려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여러 작품에 출연 중이다.

올해 SBS 드라마 '귀공'에 특별출연했고, 9월에는 KBS 2TV 드라마 '은수 좋은 날'에 이영애와 함께 출연한다. 10월에는 코미디 영화 '퍼스트 라이드'로 관객을 만나고, 넷플릭스 시리즈 '나를 총전해줘' 주연으로도 캐스팅됐다.

heeva@yna.co.kr

## 정상 눈앞 '케데한'... '골든' 2위 등 8곡 빌보드 싱글 진입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이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3주 연속 대거 진입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속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Golden)이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OST 총 8곡이 '핫 100'에 동시 진입했다.

이달 초 81위로 싱글차트에 처음 진입한 '골든'은 2위까지 빠른 속도로 순위를 끌어올리며 정상까지 한계단 남겨뒀다.

극중 헌트릭스와 경쟁하는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의 '유어아이돌'(Your Idol)이 12위로 뒤를 이었다.

헌트릭스의 '하우 잇즈 던'(How It's Done)은 19위, 사자 보이즈의 '소다팝'(Soda Pop)은 21위에 자리했다.

헌트릭스 루미와 사자 보이즈 진우의 듀엣곡 '프리'(Free)는 30위, 헌트릭스의 '왓 잇 사운즈 라이크'(What It Sounds Like)는 31위를 기록했다.

'테이크다운'(Takedown)은 헌트릭스가 부른 버전이 39위, 걸그룹 트와이스 정연·지효·채영이 부른 버전이 76위에 올랐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이로써 3주 연속 싱글차트에 OST 8곡을 동시 진입시켰다. 8곡 모두 지난주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식지 않는 인기를 입증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전주보다 2계단 상승한 3위를 차지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헌트릭스가 악령들로부터 인간 세계를 지키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지난달 20일 공개 이후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cjs@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오승준 목사의 '영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왕의 오늘

'영의 생각' 경계를 넘어선 삶의 혁명적 통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 성공적인 미래를 갈망한다. 한국에서는 치열한 스펙 경쟁에,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밤낮없이 질주한다. 서점가는 자기 계발 서적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애쓴다. 하지만 이 피로한 경주의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봉을 목표로 삼지만, 정작 그 목표에 도달한 후에도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혹자는 '직장이라는 틀에 갇혀 살아가는 그들이 미친 사람으로 보였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 나서는 과감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책을 통해 '마음이 훈련되자,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 통찰력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고 증언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한다. '세상 사람들은 책을 읽으며 자신을 알아가는데, 전능하신 하

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는 왜 정작 나 자신을 몰랐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영의 생각'에 있다. 자기 계발의 뿔, 그리고 '영의 생각'의 단비, 세상의 자기 계발은 '부족하니 채워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더 높은 성적,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부를 향한 끝없는 욕망과 경쟁을 부추긴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를 '언제든 대체 가능한 토피바퀴'로 만들 뿐이며, 결국 소모되고 제거될 수 있는 존재로 전락시킨다. 성경은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곧 사망이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경고한다. 세상의 모든 노력과 성취가 결국 허무와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다르다. 이는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맞추려다 지쳐 있던 우리에게 '단비와도 같은 혁명적인 통찰'이다. 영의 생각은 우리가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자기 계발된 새로운 피

조물로서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이는 우리가 외부에서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 애쓰기보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충만함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영의 생각'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의 물결, '영의 생각'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참된 정체성 발견,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다. 영의 생각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참 모습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영의 생각을 통해 발견하고 인식'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한다. 이러한 정체성 확립은 삶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준다.

문제 해결과 기적, 영의 생각을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된다. 영의 생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마치 성경 속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벽을 무

너뜨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영의 생각을 통해 우리 삶에 실체화된다. 사고의 확장과 통찰력, '영의 생각을 많이 한 만큼 하나님의 인정함에 순종하게 되고 자신을 인식하는 영의 생각이 높아지고 영의 생각의 수준 만큼 말씀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왕의 오늘'을 위한 영의 생각 훈련, 이러한 '영의 생각'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다. 필자는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영의 생각을 제대로 해 보라'고 권면한다. 최소 3년의 훈련 기간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의식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것이며, '변화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훈련은 '자신의 기준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과거의 왜곡된 생각과 편견, 세상이 주입한 '부족하다, 채워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하나님의 인정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취된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나는 여름이 좋다



김희욱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인생은 사계절로 곧잘 비유된다. 봄은 유년기일 적에 여름은 성장기이며, 가을은 성숙기이고, 겨울은 반성과 용서라 할 수 있겠다. 색깔로 맞춘다면, 봄은 노란색일 적에, 여름은 푸르름이요, 가을은 붉디 붉은 진홍색인바, 겨울은 회색 아니면 흰색이라 해도 무방 하겠다.

사계절이 형용사도 아닌 동사動詞라 한다. 하긴 그럴수도 있겠다. 계절은 매해 바뀌기 때문이다

. 광화문 글판이 새로 걸렸다. 올 여름 문안이다. 여름은 자라고, 번지고, 흐르며 또한 솟는다 했다. 여름은 동사라는 거다.

여름은 동사의 계절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 (광화문 글판, 2025년 여름)

그렇다면 가을은 형용사일 수도 있겠다. 푸른 하늘과 어울려 찬

란한 단풍이 제격일 테니 말이다. 뭐 빠진건 없던가. 아니 부사副詞가 빠졌는데, 부사의 계절은 아마 봄일 게다. 겨울을 버렸을 테니 고맙고 따뜻한 봄이란 말인 즉,

겨울은 접속사일 수도 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라 할 적에 겨울엔 반드시 '그리고' 라는 접속사가 붙는다. 영화제목에도 있다. 유튜브에 나오는 걸 몇 장면 봤다. 배경은 훌륭했는데, 호수 위에 떠있는 산사가 인상적이다.

호수 물과 둘러친 숲과 조각배와 불당이 조화로운 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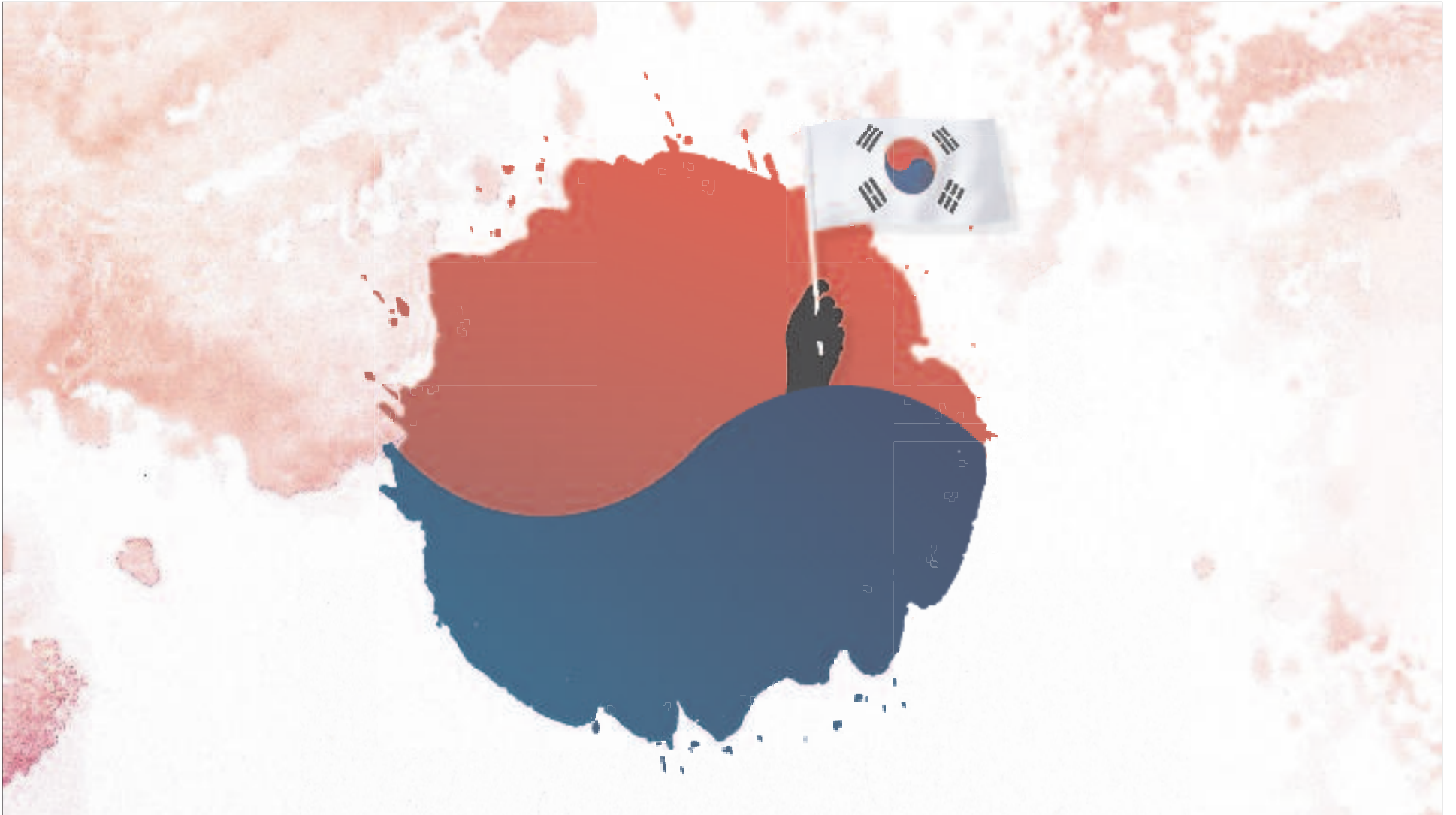
성숙한 사계四季 뿐이라. 이른 봄도 있고, 늦은 봄도 있으며, 이른 여름과 늦더위를 머금은 여름도 있다. 이른 가을 그리고 늦추위의 겨울도 있다.

한창 여름이 짙어간다. 그리고 여름은 갈것이고 가을이 닥쳐올 것이다. 굳이 시에 가져다 붙인다면, 여름을 버려야 가을이 온다. 짧지만 아름다운 계절일텐데, 아

름다운 건 언제나 길지 않다. 조사助詞의 계절도 있을 런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갈라디아서 4:10)

첨) 영화는 홍상수감독의 작품이다. 홍감독이 보스톤을 방문한다고 했다. 회고전을 개최하는데, 사계절 시리즈라고 이름 붙였다.



되찾은 조국의 광명

8월 15일

# 광복절

시간: 2025년 8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One Gateway Center),  
300 Washington Street  
Suite 800. Newton, MA 02458



보스톤 대한민국 총 영사관



매사추세츠 한인회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젊은 층 늘고 있는 담낭 질환, 담낭 절제 시 로봇수술로 정밀하고 안전하게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담낭 절제 시 정밀하고 안전한 로봇 수술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외과 이 병모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60~70대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되던 담낭 질환이 최근 무리한 다이어트가 담석증을 유발해 20~40대 젊은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담낭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약 7만 9,533명으로, 10년 사이 4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환자 수는 동기간 44% 늘어났다.

젊은 층의 담낭 질환의 원인은 급격한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담즙 내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져 담석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젊은 층의 환자들은 수술 후

빠른 회복과 흉터 최소화를 고려해 로봇수술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 병원을 찾은 24세 여성 환자의 병명은 담낭염이었는데,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약간 치우친 특이한 형태의 담낭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수술방식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을 위해 로봇담낭절제술을 선택했다. 초진 시에는 염증이 심하지 않아 보였는데, 막상 실제 수술을 해보니 상당한 염증이 확인됐다.

정상 위치가 아닌 담낭은 일반 복강경 수술로 진행하려면 수술 범위 확대를 위해 추가 절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로봇수술은 정교하고 자유로운 관절 움직임으로 복잡한 위치에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술이 가능하다.

로봇수술은 관절이 있는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강 내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해 해부학적으로 특이한 구조를 가진 환자에게 보다 유리하다.

담낭은 간과 담도 및 혈관 등 구조물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담낭절제술은 담낭염, 담석증, 담낭 용종 등 다양한 담낭 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로 위치상 간과 담도 손상을 최소화하며 담낭을 절제하는 정교한 수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로봇수술은 10배 이상 확대된 고화질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입체적으로 확인하며, 외과의사의 손 떨림 없이 정밀한 조작이 가능해 출혈 예방은 물론 출혈 시 지혈이 가능하다.

또한, 합병증을 최소화해 기존 복강경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통증도 적어 안전성과 정교함이 뛰어나다. 배꼽 주변 최소 절개로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 미용적 만족도도 높다.

로봇수술은 담낭절제술, 탈장교정술 등 다빈도 양성 질환 중심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로봇수술은 수술 시 흉터가 적고 수술 공간과 시야 확보가 용이하며, 미세하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향후 다양한 해부학적 변형을 가진 환자나 위암, 간암, 직장암, 비만대사수

술, 전립선암 등 수술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를 중심으로 적용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 층 늘고 있는 담낭 질환, 담낭 절제 시 로봇수술로 정밀하고 안전하게”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담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로봇 담낭절제술

- 담낭절제술 특징**
  - 간, 담도 손상 최소화하며 담낭을 절제하는 정교한 수술
- 로봇 담낭절제술의 장점**
  - 10배 이상 확대 관찰 위험 + 정확한 지점
  - 손 떨림 없이 정밀한 조작
  - 합병증 최소화, 빠른 회복, 배꼽 주변 최소 절개
  - 흉터 적어 만족도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로봇수술**
  - 로봇담낭절제술만 누적 160건 이상
  - 로봇 수술 안전성·정확성 증명



자료제공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회법인



호연회계법인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을 이용해보세요!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휴람 치과 이벤트

- 1 임플란트 오스템 [99만원~]
- 2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3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4 라미네이트 [40만원~]
- 5 미백 [30만원~]
- 6 전체틀니 [180만원~]
- 7 크라운 [40만원~]
- 8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셋강역)  
옥스치과(강남역)  
스카이뷰치과(신논현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이메일 : [huram@huram.kr](mailto: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http://www.huramkore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 NMLS 1464242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 NMLS 254885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978) 314-8818  
mike.lee@gmccloan.com

# 미국 주택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

## — 예비 주택구매자가 주목해야 할 요소들

Article (12) - How Interest Rates Are Set: Explanation of what drives rates in the US, and what potential homebuyers should watch for.

금리는 경제의 신호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수치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뿐 아니라, 미국 국채 수익률, 인플레이션 기대, 경기 전망, 금융시장의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됩니다.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매체에서 보도되는 기준금리 인상이나 인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금리가 실제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지표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미국 내 대부분의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일정한 가산 금리를 더해 결정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더라도, 시장이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다면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결과적으로 모기지 금리도 동반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장에서는 안전 자산인 국채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모기지 금리도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금리를 움직인다**  
금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기대입니다.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

상이 강해질수록, 투자자들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채 수익률과 모기지 금리가 모두 오르게 됩니다. 반면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거나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질 경우, 시장은 보다 낮은 금리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게 되며, 이는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역할은 간접적**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주로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장기금리의 흐름을 따르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연준이 어떤 방향의 통화정책

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기대 심리가 달라지므로, 결과적으로 모기지 금리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인플레이션 통제를 강조할 경우, 시장은 이를 긴축 신호로 받아들여 장기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예측' 이 아닌 '계획'**  
금리는 매우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비 주택구매자께서는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본인의 예산, 상환 가능성, 향후 거주 계획 등을 기준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또한, 모기지 금리는 신용 점수, 대출금액, 다운페이먼트 비율, 대출 상품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금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준비는 할 수 있다**  
전국 50개 주에서 주택금융 업무를 하며 느낀 점은, 금리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외부 변수이지만, 정보와 계획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금리라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기보다는, 그 흐름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신다면, 어떤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주택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피부에 닿는 순간, 캠핑이 악몽으로... 포이즌 아이비! 예방부터 병원 치료까지 총정리

미국 내과 / 비만 전문의 이용현

Charles River Medical Associates - Obesity Clinic  
61 Lincoln Street, Suite 301, Framingham, MA 01702  
508-820-8332

풀을 건드렸는데 갑자기 가렵고 빨갱게 부어올랐다면?  
포이즌 아이비(Poison Ivy)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우 흔하지만,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어떤 풀이 문제일까?**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물 3종:  
Poison Ivy  
Poison Oak  
Poison Sumac  
이 식물들은 겉보기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유루시올(Urushiol)'이라는 기름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잎, 줄기, 뿌리는 물론, 동물 털이나 도구에 묻은 오일, 심지어는 태운 연기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일반 고무장갑은 소용 없습니다. 두꺼운 정원용 장갑을 착용하세요.  
⚠ 겨울이라도 방심 금물! 말라 죽은 잎에도 유루시올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졌다면? 1분도 아까워요!**  
접촉 후 몇 분 안에 대처해야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거지 세제 + 따뜻한 물 → 접촉 부위를

닦기  
흐르는 물 or 타월로 한쪽 방향으로 닦기  
10분 이내 시작 시 50% 이상 유루시올 제거 가능  
30분 지나면 제거율 10% ↓ → 무조건 빠르게!  
⊕ 차가운 물로 닦으라는 정보는 잘못된 팁입니다.  
→ 기름 닦듯 따뜻한 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증상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까?**  
4시간~4일 후 가려움, 붓기, 물집, 발적 때문 3주 뒤까지도 증상이 늦게 올 수 있음  
손톱에 긁힌 듯한 직선 발적 형태가 대표적  
💡 감염병처럼 퍼지는 게 아닙니다.  
→ 유루시올이 묻은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이차 접촉으로 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  
경증: 오트밀 목욕, 시원한 타월 압박, 칼라민 로션  
중등도 이상:  
강한 도포용 스테로이드 (1등급, 초기에 만 효과)



증상 심한 경우 먹는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손) 14~20일 투여  
2차 감염 의심 시 항생제 처방 가능  
☑ 항히스타민제(예: Benadryl)는 가려움 완화에 도움 안 됩니다.  
→ 졸려서 못 굶는 거지, 약효는 없음!  
**피해야 할 잘못된 치료**  
바르는 항히스타민  
마취제 크림 (벤조카인)  
항생제 연고  
→ 오히려 피부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  
☑ 식물 사진 외우기  
☑ 두꺼운 장갑 & 옷 관리 철저히

☑ 닿았을 땐 10분 안에 세제 + 따뜻한 물로 세척  
☑ 피부 이상 시 병원 방문 + 약물 치료 고려  
☑ 항히스타민제나 마취크림은 사용하지 말 것!  
풀이 무성한 계절,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해 꼭 알아두세요.  
이 칼럼은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9-Cb7Fc7hWU>

든든한 미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세요.

# Grace Kim 보험

★★★★★  
**메디케어 전문**  
★★★★★



- ✓ 신뢰와 경험의 전문가
- ✓ 쉽고 정확한 상담
- ✓ 최적의 플랜

생명보험  
의료보험  
(개인/직장)

장기요양 보험  
(Long Term Care)

메디케어

평생연금  
(Annuity)

IRA, 401K,  
Simple IRA



Grace Kim

## 978.800.3467

✉ [grace.kim@ebshealth.us](mailto:grace.kim@ebshealth.us)





#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